

중국의 한국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인식과 대응: 전략적 불편과 희망적 사고*

이기현**

- I. 서론
- II. 중국 내 사드 담론과 모순
- III. 전략적 불편: 주변국의 대미편승과 중국의 공세외교
- IV. 중국의 희망적 사고와 감정적 처벌
- V. 결론

주제어: 사드(THAAD), 한중관계, 전략적 불편, 희망적 사고

| 국문초록 |

중국은 한국의 사드(THAAD) 배치에 왜 공세적으로 대응했는가? 이 질문은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한중 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현재까지 여전히 중요하다.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 내 사드 관련 주요 담론을 안보이익 침해론, 기술적 무용론, 전략적 불균형론 등으로 분류·검토하였다. 그러나 이 담론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공세적 대응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드는 한국의 안보이익에 유용하며, 중국의 미사일 체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고, 전략적 불균형론 역시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본 연구는 중국의 공세적 대응 이유가 사드 자체의 위협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대미 편승 확대에 대한 전략적 불편(strategic discomfort)과 한국이 자국에게 포섭가능하다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이후 역내 국가들의 중국 견제 및 자국 이익 실현을 위해 미국에 편승하는 추세가 확대되었다. 중국은 이 환경의 변화가 전략적으로 불편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거와 달리 공세적 대응을 선택하였다. 한편,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고 중국의 한반도 전략 변화, 한중관계 개선 등의 이유로 중국은 한국을 포섭 가능한 국가로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에게 역내 국가 사례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대미 편승으로 인식되었고, 중국의 희망적 기대를 걸었던 한국에 대한 배신감이 더해져 중국의 공세적 대응을 야기한 것이다.

✦ 『국제관계연구』 제23권 제2호 (2018년 겨울호).

<http://dx.doi.org/10.18031/jip.2018.12.23.2.41>

* 이 연구는 2018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Diplomacy (LD)학부 조교수.

I. 서론

중국은 한국의 사드(THAAD) 배치에 왜 공세적으로 대응했는가?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정책결정에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으며, 배치 결정 이후에는 경제, 사회적 보복 조치를 단행하였다. 중국의 외교·군사 관료뿐만 아니라 최고위급 지도자들까지 줄곧 사드 문제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중국 대중과 언론들은 이 문제에 극도의 혐한 정서를 표출하면서 한중관계를 급속하게 냉각시켰다. 경제적으로는 직, 간접적인 보복성 조치로 인해 다수의 한국 기업들의 상당한 이익 손실이 불가피했다.

사드 문제는 한국의 문제인 정부가 출범하고, 2017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하지 않으며 △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을 것이라는 소위 3불 원칙 천명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 조치 해제는 여전히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남북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도 중국은 사드의 완전한 철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사드 문제로 인해 악화된 한중관계 회복은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관계에서 사드 이슈는 현재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사드 반대 이유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은 여전히 중요하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다수의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진행되었다.¹⁾ 그러나 주로 동북아 안보 환경 및 미중관계 변화나 한국의 안보이익 차원에서 분석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이 연구들이 중국의 사드 반대 이유에 대해 간접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1) 국내에서만도 다양한 시각과 논리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동북아 안보 환경 및 미중관계의 시각에서의 대표적 분석은 김재철, “미-중관계와 한국 대미편승 전략의 한계: 사드배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국제정치』 33권 3호 (극동문제연구소, 2017), pp. 1-31; 박휘락,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THAAD) 논란이 갖는 의미,” 『국제관계연구』 21권 1호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6), pp. 33-63이 있으며, 한중관계 차원에서는 이희욱, “한중관계의 주요쟁점,” 『중국어학회 학술발표회』 (중국어학회, 2017), pp. 145-151; 이남주, “사드와 한반도 미래,” 『황해문화』 95호 (새얼문화재단, 2017), pp. 187-204; 한석희, “사드갈등과 한·중관계의 신장타이: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30권 1호 (동서문제연구원, 2018) 등의 연구가 있다. 이 밖에도 중국의 언론보도행태, 대중들의 인식 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하였다.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로 중국 내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학자들의 애국주의 성향과 자국 안보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중국이 왜 한국에 그토록 분노하고 공세적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객관적이라고 평가하기 힘들다.²⁾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었으나, 중국학자들은 대체로 한국의 사드 배치를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하며, 한미일 군사안보 동맹 강화에 이어 중국에는 동북아 지역에 신 냉전 구조를 악화시킬 주요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³⁾

이러한 분석들은 사드에 대한 중국의 위협인식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기는 하지만, 중국이 이 문제로 왜 한국에 분노하고 심지어 보복조치까지 감행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에는 설명력이 다소 부족하다. 본 연구는 중국의 공세적 대응의 이유에 안보위협과 지정학적 혹은 전략적 불균형 상황이 야기된다는 위협 인식 외에 또 다른 원인들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에서 시작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론에서 의문을 제기하였고, II절에서는 한국의 사드 사태 이후 중국 내 전문가 그룹에서 형성된 사드 반대 담론이 어떠한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류를 진행하고 각 주장들의 모순을 지적하고자 한다. III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사드가 야기할 안보위협, 한미일 동맹 강화, 신 냉전 구도 악화 등의 지정학적 혹은 전략적 불균형보다 또 다른 이유로 중국의 부상 이후 전개된 전략적 환경 변화 속에서 주변국들의 행위 양태에 대한 전략적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설명할 것이다. IV절에서는 중국 주변국들의 사례와 달리 직접적인 이익 충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게 유달리 분노하고 공세적 대응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밝히고자 한다.

2) 중국 내 연구에 대해서는 II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소개할 것이다.

3) 중국학자들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대표적 연구들은 Michael D. Swaine, "Chinese Views on South Korea's Deployment of THAAD," *China Leadership Monitor*, Vol. 52, No. 4 (2017); 이상현·정재홍,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인식과 한국의 대응," 『정책 브리핑』 18 (세종연구소, 2016); Jung-Mi Cha, "China's Threat Perception and Response Strategy toward the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통일연구』 21권 2호 (연세대, 2017), pp. 39-93 등이 있다.

II. 중국 내 사드 담론과 모순

1. 중국 내 사드 담론

중국 내 사드와 관련된 인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안보이익 침해론이다. 이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중국 외교부는 사드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드가 중국의 안보이익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⁴⁾ 안보이익 침해에 대한 핵심적 논쟁은 사드 시스템의 일부인 X-Band 레이더의 탐지범위에서 비롯되었다. 다양한 과학적 추론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X-Band 레이더의 실전용 미사일 탐지 거리는 최소 1,000km에서 최대 2,000km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한반도의 방어를 넘어, 중국과 아시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범위이다.⁵⁾ 더구나 현재의 미사일 발사 체계는 공격용 발사체에 유인 미사일을 동시에 탑재하여 적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혼란을 주고 미사일 적중률을 높이는 방식을 사용한다.⁶⁾ 그러나 이 레이더 체계는 이 식별기능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 미사일 억지 효과를 배가시킨다. 이로 인해 중국 동부 연안의 미사일 기지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평화시기에는 중국 전역의 미사일 실험 정보가 관측 수집될 것이라는 주장이다.⁷⁾

둘째, 기술적 무용론이다. 한국은 북한과의 거리가 매우 짧아, 고도 40~150km 사이의 종말 단계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기술인 사드는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진정 목적으로 한다면, 중단거리 미사일 방어에 최적화된 패트리어트 체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중국

4) 中国外交部, “2015年2月5日外交部发言人洪磊主持例行记者会,” http://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t1234731.shtml (검색일: 2018년 9월 1일).

5) 钟声, “值得警惕的危险之举,” 『人民日报』, 2016年 7月 31日; 吴日强, “美国亚太反导系统对中国安全的影响及中国的对策,” 『中国国际战略评论』 第7期 (2014), pp. 341-358.

6) 현재 한국 내 미사일 방어 체계 내 레이더 시스템은 발사체가 실제 공격용인지 유인용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7) 王世涛·邢晓莉, “韩国部署萨德系统对中国沿海弹道导弹影响浅析,” 『飞航导弹』 9期 (2016), pp. 49-53.

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다.⁸⁾ 실제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X-Band 레이더는 현 그린파인 레이더보다 기술적 장점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무용론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확대시켰다. 한국 환경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반도 방어 이상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⁹⁾

셋째, 전략적 불균형론이다. 사드 시스템의 군사적, 기술적 논쟁을 넘어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중국 내에서 사드 관련 주요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다수의 중국학자들은 사드 도입으로 인해 역내 관련 당사국들의 안보 전략 조정이 불가피하고, 역내 지정학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며, 심지어 역내 신냉전 구도를 유발시킬 것이라 우려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1) 사드 도입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반발을 가져와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킨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남한의 사드 도입에 대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는 남북한 군비경쟁으로 치달을 것이다.¹⁰⁾ (2)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발사되는 중장거리 미사일들에 대한 억지효과를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동북아 역내 군비경쟁은 불가피하다.¹¹⁾ (3) 사드 도입은 한미동맹 강화를 의미한다. 사드 도입 이후 한국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됨에 따라 한국의 국가 전략은 더욱 미국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¹²⁾ (4) 결국 사드 배치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 역내 미사일 방어 체계(MD) 구축의 일환이며 동유럽의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도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미국의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완성시킬 것이다.¹³⁾ 결국 이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충돌을 야기시켜 신냉전이 도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¹⁴⁾

8) Gaoyue Fan, "ROK: the Biggest Loser of THAAD," *China-US Focus* (Aug 9, 2016), <http://www.chinausfocus.com/foreign-policy/rok-the-biggest-loser-of-thaad> (검색일: 2018년 9월 1일).

9) 중국의 의심은 왕이 외교부장의 항장무검(項莊舞劍) 발언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왕 부장은 이 경구를 통해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에 미국이 중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음모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왕이 中외교부장 '사드는 유방(중국)노린 항우(미국)의 칼춤,'" 『중앙일보』, 2016년 2월 14일.

10) Nan Li, "Deploying a THAAD System in the ROK: Bringing Back New Cold War Situation in Northeast Asia?" 『和平』 第3期 (2016), p. 17.

11) 石源华, "萨德入韩与韩国的国家主权," 『世界知识』 第5期 (2017), p. 72.

12) "萨德入韩破坏地区战略平衡," 『解放军报』, 2016年 8月 5日.

13) 李沁好, "萨德导弹系统部署韩国的地缘政治学解读," 『当代韩国』 第4期 (2016), pp. 51-52.

2. 주요 담론의 모순

이상과 같이 사드에 대한 중국 내 주요 담론은, 안보이익 침해, 기술적 무용성, 전략적 불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논리 및 주장들이 존재한다.

첫째, 안보이익 침해론에 대한 반론이다. 주변국가에 군사적 신기술이 도입되고 이 기술이 자국의 군사능력을 침해할 것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 우려가 한국에 대한 중국의 분노 수준의 대응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사드는 중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 사드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 종말단계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격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사드는 적국의 미사일이 부스트 또는 중간 단계에 있는 동안에는 격퇴할 수 없다. 이는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중국의 미사일을 차단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논란이 제기되는 X-Band 레이더 역시 북한 발 미사일을 차단하기 위한 종말모드로 설정될 것이고 이 모드 전환 역시 상시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레이더가 중국 내부를 속속들이 파헤칠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¹⁵⁾ 따라서 사드 배치가 미국에 대한 중국의 핵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부 중국학자들 역시도 X-Band 레이더의 중국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ICBM)의 대다수가 동북부 지역이 아닌 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중국의 핵 미사일 잠수함 역시 남중국해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¹⁶⁾ 이러한 주장들에 비쳐볼 때, 사드의 한국 배치에 따른 중국의 안보이익에 대한 실질적 위협은 생각 외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술적 무용론에 대한 반론이다. 기술적 무용론은 중국 대중이나 언론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나, 타국의 안보주권과 관련된 정책 결정을 비판하면

14) Nan Li (2016), pp. 16-18.

15) 이창형·최우선·고봉준 등, “THAAD와 한중안보관계,” 『통일연구원 정책자문회의』, 2016년 3월 17일.

16) Zhao Tong, “China should not fear US missile deployment in South Korea,” *South China Morning Post* (April 27, 2016), <https://www.scmp.com/comment/insight-opinion/article/1938956/china-should-not-fear-us-missile-deployment-south-korea> (검색일: 2018년 9월 1일).

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론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사드가 기술적으로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한국 정부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이 효용에 의심이 가기 때문에 한국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타국이 비판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내정 간섭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실 사드의 기술적 효용성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으나, 중국의 일부 학자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사드의 방어적 유용성에 대해 동의하였다.¹⁷⁾ 한국의 안보적 입장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신뢰할만한 거부적 억제 수단이 필요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을 보유하게 되는 2020년대까지 전력 공백의 보완은 불가피하다.¹⁸⁾

사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소문은 우리정부의 비공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언론을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절대 절명의 안보적 위협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 상당한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4차 핵실험까지 강행하였고, 당시 한국 정부로서는 안보주권 보호와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대응책이 필요하였다. 사드 배치의 배경이 북핵 고도화 및 미사일 도발에 따른 우리의 안보위협 증대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분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이 정책결정에 대한 국내의 찬반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제3자인 중국이 지나치게 신기술 도입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도를 넘은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전략적 불균형론에 대한 반론이다. 중국은 사드 도입으로 인해 역내 국가들의 전략조정이 불가피하고, 군비경쟁 등으로 인해 전략적 불균형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다. 또한 사드 배치를 곧 미국의 역내 미사일 방어 기제의 완성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미 설명하였듯이 사드가 중국의 안보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면, 군사안보 불균형 더 나아가 역내 전략적 불균형과도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더구나 미국의 MD 체계에 한국은 지속적으로 불가입 원칙을 천명하였다. 그렇다면 무슨 균형이 깨진다는 의미일까? 세력균형은 국제정치 현실주의자들에 의해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다. 재미난 것은 이 균형을 바라

17) 저자가 참여한 다수의 전략대화에서 중국 측 학자들은 북한 핵미사일의 고각 발사의 가능성과 비록 한계가 있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사드의 방어적 효용성과 억지력을 인정하였다.

18) 이창형·최우선·고봉준 등 (2016).

보는 시각이 미국과 중국이 판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미국의 외교안보라인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역내 불균형을 야기하기 때문에 세력균형을 위해서 기존 동맹의 강화 및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현재 역내 질서가 균형 상태이고, 오히려 미국의 균형 맞추기 노력이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 역내 질서 및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정의가 극단적으로 다른 것이다. 객관적으로 무엇을 역내 불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 모호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역내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중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만일 중국의 주장대로 한다면, 사드배치로 인한 역내 불균형이 야기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된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문제는 중국이 역내 불균형을 전제로 한 미국의 주도적 질서를 인정해왔다는 점이다. 중국의 대표적 외교 전략인 도광양희(韬光養晦)가 이를 잘 나타낸다. 중국의 외교 전략이 이미 도광양희의 선을 넘었다는 논쟁이 진행 중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표면적으로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역내 행보에 대한 불균형 야기라는 표현 사용은 아직까지는 모순이다.

III. 전략적 불평: 주변국의 대미편승과 중국의 공세외교

사드는 중국의 안보이익에도 침해가 되지 않으며, 한국의 안보를 위한 기술적 유용성도 있다. 더구나 중국이 주장하는 군사안보적 시각에서의 전략적 불균형 논리 역시 궁색하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역내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대한 한국의 협력 때문에 분개했다면, 중국은 이미 200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일본 정부의 PAC-3, SM-3 방어 미사일 도입(2003), X-Band 레이더 도입(2005) 등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한다. 중국이 군사 무기의 배치를 이유로 타국에게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중국이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타이완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처음이다.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또한 사드 관련 중국의 비난과 보복이 사드 배치의 배후로 지목한 미국보다는 어렵게 배치 결정을 한 한국에 집중되었다는 점 역시 의문이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한국에 그토록 공

세적이었던 것인가? 사실 비슷한 시기 중국이 주변국의 외교정책 결정에 공세적 대응을 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 따라서 중국이 처한 전략적 환경 변화와 주변 외교 행태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1.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과 주변국의 편승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였다. 미국은 소위 자국 주도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과 관계를 재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동시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기존의 전략적 협력 수준을 넘어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였다.¹⁹⁾ 이 과정에서 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미국의 힘의 전환에 편승하는 정책을 선택하면서 신흥 부상국인 중국을 견제하려 하였다.

편승은 열세국들이 강대국에 대항하는 균형정책을 통한 안보 확보가 어려울 때 왕왕 택하는 정책으로, 보다 강력한 국가 또는 세력으로의 합류를 통해 안보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⁰⁾ 약소국의 편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전통적 의미의 편승으로, 약한 국가들이 자주권의 상당한 양보를 통해 강대국과 군사동맹을 형성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연성편승으로 군사동맹을 형성하지 않더라도 강대국과의 군사협력 확대, 군사기지 제공 등을 통해 자국의 안보 이익을 강대국의 안보정책에 부합시킴으로써 안보 증진을 추진하는 경우이다.²¹⁾

당시 중국 견제를 위한 전통적 편승의 대표적 사례는 첫째, 2010년 미일동맹의 재강화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닌타오(钓鱼岛)) 분쟁이다. 2009년 일본은 하토야마 정권 출범과 함께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합의안 재검토,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제시 등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지향하면서 중국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2010년 3월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19) 최우선,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주요국제문제분석』 10-44 (국립외교원, 2011), p. 18.

20)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1979), p. 126.

21) Zachary Selden, “Soft Bandwagoning and the Endurance of American Hegemony,” APSA 2010 Annual Meeting Paper (September 13, 2010).

‘천안함사건’을 계기로 기존 전략을 대폭 수정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 센카쿠열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사건이 영유권분쟁으로 비화되면서 미국에 대한 편승을 가속화시켰다.²²⁾ 이러한 정책 전환의 이유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오랜 기간 침체기를 겪으면서 역내 영향력이 감소하였고, 국내정치의 우경화 추세가 대외정책으로 전이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의 아베 정권은 중국의 부상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려는 아시아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Asia Democratic Security Diamond)을 발표하고, 미국에 대한 적극적 편승을 통해 중국 포위망 외교를 구체화하고 있다.²³⁾

둘째, 필리핀의 편승사례이다. 2011년 필리핀은 미국의 회귀를 앞장서서 환영하면서 중국과의 이익갈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미국의 힘에 편승하려 하였다. 필리핀은 미중 양국과 아세안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하자고 중국에 제안하였다. 물론 중국은 즉각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011년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하면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는 미국의 국가적 이해(national interest)가 달려 있다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지배력 강화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실제 중국과의 충돌은 2012년 4월 스카버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해역을 둘러싸고 발생한 영유권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필리핀이 이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제소하면서 갈등은 더욱 확대되었다. 더구나 필리핀은 갈등 직후 미국과의 대규모 공동 군사훈련을 단행하였고,²⁴⁾ 이후 2014년에는 미국과의 방위협력증진협정(EDCA)을 체결하여, 1992년 필리핀에서 철수하였던 미군의 재주둔을 허용하였다. 또한 중국과 분쟁 중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를 겨냥한 도서 상륙 연합훈련²⁵⁾ 등을 통해 미국에 대한 편승을 강화하였다.

22) 배정호 외, 『오바마행정부 출범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통일연구원, 2010), pp. 112-113.

23) 이기현 외, 『중국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통일연구원, 2014), pp. 54-57.

24) 이기현 외 (2014), pp. 59-62.

25) “미-필리핀,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조선일보』, 2014년 5월 7일.

셋째, 호주 역시 미국과의 기존 동맹을 강화하였다. 호주는 기존의 합동훈련인 탈리스먼 세이버(Talisman Saber)를 전력화, 정례화시켰으며, 2011년에는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및 전파감시기지 제공에 합의하였다. 더구나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아시아 지역 개입을 유도하기 위해 호주 북부 다윈지역에 로버트슨 미 해군기지 건설을 허용하고, 2012년부터 미 해병 공중-지상 특임대(Air-Ground Task Force)를 배치하였다.²⁶⁾

이 밖에도 역내 국가들의 대미 연성 편승도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는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미국의 동맹국도 아니고 심지어 과거 전쟁을 한 적대국의 관계였다. 그러나 베트남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편승전략을 활용한 것이다. 베트남은 필리핀과 유사하게 2011년 남중국해 영역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벌였다. 2011년 5월 중국 순시선이 베트남 석유탐사선의 케이블을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되었다. 상호 간의 시위 등 비방과 군사적 대치가 일어났다. 사건 이후 베트남 역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시켰다. 미국과 조지 워싱턴호를 동원한 해상 연합훈련 실시 및 미 해군 함정의 베트남 기항 허용 등 특히 해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였다. 또한, 양국 간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는데, 양국 국방부 간 정기적인 고위급 대화 기구 발족, 해양 안보, 탐색 및 구조 등 5개 분야에서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였다.²⁷⁾

2. 중국의 주변국 공세외교

중국은 미국의 대중 견제 확대에 대한 균형을 오래 전부터 추구해왔다. 중국은 2000년대 이래 주변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였고, 특히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전략관계를 심화시켰다. 또한 상하이 협력기구(SCO), 6자회담,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CICA) 등을 주도하면

26) “호주 다윈에 첫 미군기지 … 美 아태 영향력 증강 일환,” 『중앙일보』, 2011년 11월 11일; 신성호, “미국의 신 동북아전략과 군사정책적 함의,” 『전략연구』 57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3), p. 174.

27) “베트남, 미국과 밀월관계 구축 가속,” 『연합뉴스』, 2011년 9월 27일.

서 다자외교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였다.²⁸⁾ 중국의 다자 및 주변외교 강화는 한편으로는 역내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재확신을 통해 중국 부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한 균형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고 중국은 본격적으로 자국의 정체성을 강대국으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새로운 국제관계 질서 형성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및 아시아 운명공동체 주창,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제 구축 노력 등을 통해 중국 주도의 역내 경제 질서 및 규범을 구축하려 시도하였다.²⁹⁾ 군사안보적으로도 강군몽(強軍夢)으로 대표되는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군사력 확대 노력이 가시화되었다. 실제 중국은 항공모함, 최신예 전투기 도입 등 첨단무기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주변국과의 군사협력 및 연합훈련을 확대하면서 군사대국화 행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른 주변국들의 대미 편승 추세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 전략에 상당한 균열을 야기하였다.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 주변국의 대미 편승은 자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거부 혹은 포섭에 대한 이탈로 불편하게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국은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외교 행태를 보인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지하는 주변국에 대해서는 보상을, 반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경제력, 정치력 심지어는 군사력까지도 사용하였다.³⁰⁾

중국은 대미 편승을 통해 자국과 영유권 갈등을 벌인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에 대해 매우 공세적이고 강경한 외교를 단행하였다. 센카쿠 열도 갈등 과정에서 중국은 일본에 대해 가스전 개발 교섭 회담 중단, 총리 회담 취소라는 강경한 외교적 카드를 우선적으로 꺼내 들었다. 민간 차원에서는 중국 대륙과 홍콩, 해외에서 반일 시위가 이어졌으며, 이례적으로 경제적 수단을 통한 대일 압박이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희토류 수출이 전면 중단되었는데, 당시 희토류

28) 이기현 외 (2014), pp. 41-46.

29) 董向荣, “中国外交布局调整与中韩关系发展新契机,” 『东北亚学刊』 第3期 (2015), pp. 7-8.

30) 이러한 중국의 공세적 외교 행위 변화에 대해서는 Michael D. Swaine, “Chinese Views and Commentary on Periphery Diplomacy,” *China Leadership Monitor*, Vol. 44, No. 1 (2014), p. 25.

최대 수입국인 일본에게는 이 조치가 매우 큰 타격이었다. 이 밖에도 중국기업과 대중의 일본 관광 계획 취소 등 민간 관광에 대한 직간접적인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다.³¹⁾ 일본 정부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조치에서 비롯된 2012년 갈등 이후에는 경제적 보복 외에 군사적 조치까지 이어졌다. 중국은 2013년 동해에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고, 이 구역을 지나가는 타국 항공기는 사전에 중국 외교부에 비행계획을 통보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중국의 전투기, 전함 등의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 대한 순시를 강화하여, 중일간 해상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를 고조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대응은 이 지역에 대한 기존 정치 외교적 대립은 가급적이면 경제, 민간분야로 확대시키지 않으려던 원칙을 깨는 것이었다.

필리핀에 대해서도 중국은 공세적이었다. 스카버러 암초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필리핀 전함과 중국의 초계함이 대치하는 사건 이후, 중국은 필리핀에 “분수를 알라”, “소국이 감히 대국에게 도전한다.”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내는 동시에, 경제 보복을 단행하였다. 중국은 당시 필리핀 관광객의 20%가 중국인인 점을 감안, 자국 내 필리핀 여행상품에 대한 전면 중단 조치를 취했다. 또한 필리핀산 바나나와 파인애플에 대한 검역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수입 제한 압박을 가했다.³²⁾ 이러한 경제 압박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후 미국과의 거리두기 정책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해제되었다.

베트남과의 갈등에서는 군사적 수단까지 사용하였다. 영유권 분쟁지역인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석유탐사 작업을 벌이던 베트남 탐사단에 대한 중국 순시선의 군사적 위협이 노골화되기 시작하였고,³³⁾ 2014년에는 파라셀 제도 인근에서 중국 군함과 베트남 초계함과의 군사적 충돌까지 발생하였다. 이 충돌로 인해 중국 국내에서는 베트남과의 전쟁 불사론까지 제기되었다.³⁴⁾ 더구나 베트남에서 반중시위가 확대되자 이를 빌미로 베트남 파견 노동자 철수, 여행 금지 조치, 중국 국유기업의 베트남 신규 사업 신설 중지 등 경제적 압박 조치 역시 단행되었다.

31) 이기현 외 (2014), pp. 55-56.

32) 이기현 외 (2014), pp. 59-62.

33) “中 노골적 ‘해양 팽창주의’ 갈등만 키운다,” 『세계일보』, 2011년 6월 10일.

34) “베트남, 反中시위 격화 … 中선 전쟁불사론,” 『세계일보』, 2014년 5월 16일.

이러한 중국의 공세적 대응은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평가이다. 영유권 갈등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중국은 관련국의 대미 편승이 본격화되기 이전까지는 이 도서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갈등을 최대한 유보시키려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갈등의 고조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힘의 이동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편승이 본격화되는 전략적 환경의 변화와 연관이 깊다. 더구나 당시 중국은 경제적 부상에 따른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 변화를 겪으면서 본격적인 역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상황이었다.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강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에게 이 환경의 변화는 전략적 불편(strategic discomfort)으로 다가온 것이고, 과거와 다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은 이례적으로 거칠고 공세적이었던 것이다.

IV. 중국의 희망적 사고와 감정적 처벌

중국의 한국에 대한 분노 역시 역내 환경변화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불편의 배경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III절에서 살펴본 사례는 소위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이익 즉 영토주권 등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도전이었나? 사드는 중국이 규정한 핵심이익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공식화한 적도 없다.³⁵⁾ 결국 그 이유에는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에게 타국사례와 버금가는 타격으로 다가온 특수적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1. 포섭가능한 국가로서의 한국

중국은 역내 미국의 동맹 국가들 중에서 특히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라고

35) 이민규,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인식 변화 연구: 중국의 핵심이익논쟁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116권 (한국국방연구원, 2017), pp. 9-34.

인식하였다. 더구나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따라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은 한국의 정책결정에 대한 강한 반대 혹은 관여를 통해 한미 동맹의 약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를 해왔다.³⁶⁾ 이는 시진핑 정부 집권 이래 중국의 한반도 전략의 변화에 기인한다.

북핵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 없이 북한발 안보 위기가 가중되자, 중국 내 정책그룹에서는 북한 부담론이 확산되었고,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넘어 한국을 보다 전략적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소위 한국 포섭론이다. 중국이 자국의 힘을 바탕으로 현상 변경을 포함한 새로운 주변 질서 구축을 하려 한다면, 주변국인 한국, 북한 모두 포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³⁷⁾ 전통적인 남한과 북한에 대한 등거리 외교 패턴을 벗어나야 한다는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주요 학자그룹에서 한중 동맹의 필요성까지 제기하는 상황을 만들었다.³⁸⁾

중국 시진핑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은 한국 박근혜 정부의 대중국 외교 강화 행보로 더욱 힘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중국 정·관계 및 시민사회의 호감도 증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매우 이례적인 호의적 접근, 심지어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없이, 한국 우선 방문 성사 등, 이전 어떤 시기보다 한중 정치관계가 우호적으로 형성되었다.³⁹⁾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중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이 강화되었고,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대화 채널의 다원화와 증충화가 진행되었다.

시진핑 정부의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중국이 기존의 한미동맹에 대한

36) 중국학자들은 역내 구도에서 한국이 경제에 있어 중국을 중시하고 안보에 있어 미국을 중시하면서 미중관계에 있어 일종의 균형추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한다. 孙绍红, “萨德搅乱东北亚风云,” 『世界知识』 第5期(2015), pp. 32-33.

37) Nan Li (2016), p. 17.

38) 이들의 주장은 한미동맹을 당장 배제하는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과 병존하는 한중동맹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阎学通, 『历史的惯性: 未来十年的中国与世界』(北京: 中信出版社, 2013); Dingding Chen, “Is a China-South Korea Alliance Possible?” *The Diplomat* (July 8, 2014).

39) 중국 내 주요 국제연구기관의 기관장과 다수의 전문가들이 당시 한중관계를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라고 과도하게 평가하였다. 저자가 참여한 다수의 전략대화에서 이 표현들이 매번 등장하였다.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오히려 한국과의 협력 강화로 상쇄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되었다. 한중 1.5 트랙 대화에서는 한중 공동 군사훈련, 한중러 안보대화, 중러 군사훈련에 한국 측의 참관 제안 등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안보 협력 의제 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일본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을 중립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⁴⁰⁾ 즉, 중국에게 한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포섭 가능한 국가(swing state)”로 인식된 것이다.⁴¹⁾

더구나 중국은 한국이 중국을 고려하여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소극적 반응을 보인다고 판단하였다.⁴²⁾ 대표적으로 한국이 당시 미국이 주도하던 태평양역내동반자협정(TPP) 협상과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과 미국 조야의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주도하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한 것을 들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미국 주도의 역내 경제 질서 구축을 위해 TPP를 확대하고 주변국들의 AIIB 가입을 반대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실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호주 등이 TPP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미국 역시 한국의 가입을 희망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관망적 태도를 일관하였고, 오히려 한중 FTA 협상에 주력하였다.

둘째, 미국은 한국이 자국의 남중국해 정책을 적극 지지해 주기를 희망했으나, 한국은 이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2015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일한 요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국제규범을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밝혀주기를 요청하였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 요청이자,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한국의 편승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 요청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도, 참여도 하지 않았다.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우선하였기 때문이다.

40) 김홍규, “중국국가 주석 시진핑의 2014년 방한과 한중관계,” 『전략연구』 21권 4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p. 72.

41) swing state는 원래 미국 대선에서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그네뛰기하듯 변하는 주(州)를 일컫는 용어이다. 포섭 가능한 국가 역시 상대국에 대한 지지가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용어에 대한 영어식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42) 潘超伟·杨守明, “韩国消极参与美国亚太再平衡战略的中国因素,” 『延边大学学报』 第4期 (2016).

셋째, 미국은 사드 논란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군사안보전략 차원에서 역내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견인하여,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한미일 동맹 실현, 즉 동아시아의 나토를 건설하려는 구상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예외로 보이려 노력해왔다. 사실상 중국을 고려한 정책이었다. 대신 한국 정부는 한국식 방어 미사일 체계(KMD) 구축을 시도하였다.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행사 참여는 중국에게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 혹은 한국 포섭론이 가능할 수 있다는 오인을 야기하였다. 박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여를 두고 중국의 언론은 “미국의 동맹국 중 유일하게 한국이 천안문 망루에 올랐다”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중국 대중에게 미국의 동맹국 한국이 중국에게 포섭되었다는 식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려 하였다.⁴³⁾

이밖에도 중국은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무시하기 힘들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심화, 그리고 일본의 우경화 및 보통국가화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중국은 당시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른 동맹 강화 흐름에 다른 주변국들처럼 무조건적인 편승을 하지 않을 것이며, 최소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과 적당한 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중국의 감정적 처벌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희망적 기대를 무너뜨렸다. 중국은 이에 분노하였고, 한국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과도한 경제적 제재 조치까지 단행하였다. 우선 중국 대중들 사이에서 한국제품 불매운동 및 반한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에 대한 통제력이 강한 중국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43) “朴槿惠为何不顾美国反对参加北京阅兵?” 『中文网』, 2015년 8월 27일, http://www.sohu.com/a/29471053_148882 (검색일: 2018년 9월 1일).

흐름에 대한 목인이 이어졌다.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조건 강화, 비관세 장벽 강화, 한국 관광 축소 등의 조치가 있었다. 이 때문에 소위 ‘금한령’으로 대표되는 한류 관련 각종 계약, 교류, 행사 등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다. 중국 관광객 유치에 의존해 온 한국 관광업은 직격탄을 맞았고,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던 한국 화장품 기업은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이 밖에도 중국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해오던 삼성SDI, LG화학, 현대자동차 등 한국 대기업들의 행보에 적신호가 들어왔고, 사드 배치 제공과 연루된 롯데의 경우 중국 정부 및 대중들의 집중적인 보복 대상이 되었다. 중국 내 롯데마트 매장은 전방위적인 세무, 소방, 위생 조사 끝에 다수 영업 정지당했고, 중국인들의 항의 시위 때문에 매출이 80% 이상 감소하는 상황 속에 사실상 사업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다.⁴⁴⁾

중국 정부 관료들의 비난 역시 매우 감정적이었다. 천하이(陳海) 중국 외교부 부국장은 한국 기업인들에게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며 한국의 위상을 폄하했고, 또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하였다.⁴⁵⁾ 물론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 전까지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한 정책 실수 역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심리적 배신감을 키운 측면이 없지 않다. 2014년 이래 미국과 한국 내 언론에서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 계획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배치 결정을 발표하는 그 순간까지도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라는 3 NO 입장을 유지했었기 때문이다.⁴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국의 군사무기 도입이라는 정책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정제되고, 냉정한 외교적 대응이라기보다는 자국의 분노를 여실히 드러내는 감정적 대응이었다. 이런 중국의 분노에는 무엇보다 중국의 강대국 정체성 강화라는 중국 자체의 분위기 변화와 한국에 대한 희망적 사고가 작용하였다. 수차례에 걸쳐 중국의 외교 라인과 심지어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한국의 전격적인 결정이 강대국 중국에 대한

44) 유현정·주재우,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대한(對韓) 경제보복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계지역연구논총』 35권 2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17), pp. 167-186.

45) “중 외교부 간부 ‘한국 사드 배치 땀 단교 버금가는 조치,’” 『한겨레』, 2017년 1월 5일.

46) “사드, 정부 입장은 3NO,” 『중앙일보』, 2015년 3월 12일.

자부심이 팽창 중이던 중국 관료와 대중들에게는 더욱 강한 배신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또한 포섭이 가능할 것 같던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흐름에 편승하는 것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이 분노를 키웠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에 대해 중국에게 호소하였고, 사드의 기술적 제약에 대해 중국에게 설명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에게 설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다수의 중국 전문가들이 한국의 사드 도입은 분명 한국의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요소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대중 견제를 확대하는 추세를 한국이 분명히 인지하면서도 이 상황을 부추기는 촉매제인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⁴⁷⁾ 즉, 한국의 안보이익은 중국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혹은 모르겠으며, 한국마저 역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중 견제 흐름에 편승한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소위 우리 편이 될 줄 알았는데, 역시 남의 편이었네”라는 사실을 재확인할 때 주는 상대적 박탈감이 감정적 분노를 더한 것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학자들이나 여론 내 여전히 “한국이 등 뒤에서 칼을 뽑았다”라는 표현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희망적 기대가 컸었음을 방증한다.⁴⁸⁾

V.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왜 공세적으로 대응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이 답을 찾기 위해 이와 관련된 중국 내 주요 인식들을 안보이익 침해론, 기술적 무용론, 전략적 불균형론 등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이어 이 주장들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사드는 한국의 안보이익에 유용하며,

47) 杨希雨, “萨德入韩与半岛安全博弈,” 『军事文摘』 第10期 (2016), pp. 17-20.

48) “짬, 朴대통령에 2차례 ‘사드반대’ … 中 매체들 ‘등 뒤에서 칼 뽑는 격,’” 『문화일보』, 2017년 3월 2일.

중국의 미사일 체계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중국에서 거론되는 전략적 불균형은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중국의 공세적 대응은 무엇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가? 이 답은 기존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라는 전략적 환경 변화에서 찾아야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변화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행태와 이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반응이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와 자국의 이익 확보를 위해서 역내 국가들은 미국의 힘의 회귀에 편승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는 과거와 달리 강대국 정체성을 발산하던 중국에게 상당한 전략적 손실과 위기로 다가왔고, 이례적인 공세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즉,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편승과 중국의 강대국 정체성 변화가 중국 외교의 공세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대응 역시 이 전략 환경의 변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맥을 같이 하였다.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미국의 대중 견제 확대의 주요 변수라고 보기보다는 한국의 본격적인 대미 편승이라고 인식하였다. 더구나 중국 시진핑 정부는 한국만큼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다른 선택을 할 것이고, 최소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적극적인 편승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를 하고 있었다. 사드는 중국에게 직접적 위협도 아니었고, 타국 사례처럼 핵심이익의 문제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에 과도하게 대응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중국이 한국에게 공세적 외교 행태를 보인 주요 목적은 한국의 대미 편승 추세에 대한 제동 혹은 최소한 시간 조절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드 배치가 야기한다는 전략적 불균형 역시 미중관계나 혹은 군사안보적 시각에서의 불균형이라기보다는 한국의 대미 편승이 그동안 중국이 형성해 온 주변국관계의 노력을 수포로 만든다는 전략적 불편의 표현이었다. 만일 사드 자체의 군사안보적 위협이 강하게 우려되었다면, 주한미군에 사드 도입과 부지제공을 허락한 한국만큼이나 이를 실제 운영할 미국에게도 강경한 대응 조치를 취했어야만 논리적 설명이 된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에게 실질적 보복을 가했지만, 미국과는 이 문제로 인한 갈등을 최대한 회피하려 했다.

결국, 중국의 공세적 대응은 다른 이유들보다 전략 환경에 대한 중국의 불편함과 한국에 대한 희망적 사고에 기인한다. 다행스럽게도 한반도 정세의 급변으로 사드로 인한 한중 갈등은 완화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에 대한

공세적 대응 이유가 단순히 군사 안보적 위협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여전히 사드는 한중관계의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역내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미중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 행보 역시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 견제가 심화될수록,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결국 한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은 “당신은 누구 편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때문에 사드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참고문헌】

- 김재철. “미-중관계와 한국 대미판승전략의 한계: 사드배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3권 3호 (극동문제연구소, 2017).
- 김홍규. “중공국가 주석 시진핑의 2014년 방한과 한중관계.” 『전략연구』 21권 4호 (한국 전략문제연구소, 2014).
- 박휘락.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THAAD) 논란이 갖는 의미.” 『국제관계연구』 21권 1호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6).
- 배정호 외. 『오바마행정부 출범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 외교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신성호. “미국의 신 동북아전략과 군사정책적 함의.” 『전략연구』 57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3).
- 유현정·주재우.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대한(對韓) 경제보복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계지역연구논총』 35권 2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17).
- 이기현 외. 『중국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이남주. “사드와 한반도 미래.” 『황해문화』 95호 (새얼문화재단, 2017).
- 이민규.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인식 변화 연구: 중국의 핵심이익논쟁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116권 (한국국방연구원, 2017).
- 이상현·정재홍.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인식과 한국의 대응.” 『정책 브리핑』 18 (세종연구소, 2016).
- 이창형·최우선·고봉준 등. “THAAD와 한중안보관계.” 『통일연구원 정책자문회의』 2016년 3월 17일.
- 이희옥. “한중관계의 주요쟁점.” 『중국학연구회 학술발표회』 (중국학연구회, 2017).
- 최우선.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주요국제문제분석』 10-44 (국립외교원, 2011).
- 한석희. “사드갈등과 한·중관계의 신창타이: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30권 1호 (동서문제연구원, 2018).
- Cha, Jung-Mi. “China’s Threat Perception and Response Strategy toward the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통일연구』 21권 2호 (연세대, 2017).
- Chen, Dingding. “Is a China-South Korea Alliance Possible?” *The Diplomat* (July 8, 2014).
- Li, Nan. “Deploying a THAAD System in the ROK: Bringing Back New Cold War Situation in Northeast Asia?” 『和平』 第3期 (2016).
- Selden, Zachary. “Soft Bandwagoning and the Endurance of American Hegemony.” *APSA*

2010 Annual Meeting Paper (Sep. 13, 2010).

Swaine, Michael D. "Chinese Views and Commentary on Periphery Diplomacy." *China Leadership Monitor*, Vol. 44, No. 1 (2014).

_____. "Chinese Views on South Korea's Deployment of THAAD." *China Leadership Monitor*, Vol. 52, No. 4 (2017).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1979).

董向荣. "中国外交布局调整与中韩关系发展新契机." 『东北亚学刊』 第3期 (2015).

李沁妤. "萨德导弹系统部署韩国的地缘政治学解读." 『当代韩国』 第4期 (2016).

潘超伟·杨守明. "韩国消极参与美国亚太再平衡战略的中国因素." 『延边大学学报』 第4期 (2016).

石源华. "萨德入韩与韩国的国家主权." 『世界知识』 第5期 (2017).

孙绍红. "萨德搅乱东北亚风云." 『世界知识』 第5期 (2015).

杨希雨. "萨德入韩与半岛安全博弈." 『军事文摘』 第10期 (2016).

阎学通. 『历史的惯性: 未来十年的中国与世界』 (北京: 中信出版社, 2013).

吴日强. "美国亚太反导系统对中国安全的影响及中国的对策." 『中国国际战略评论』 第7期 (2014).

王世涛·邢晓莉. "韩国部署萨德系统对中国沿海弹道导弹影响浅析." 『飞航导弹』 9期 (2016).

〈신문 및 인터넷 자료〉

『문화일보』.

『세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人民日报』.

『解放军报』.

<http://www.chinausfocus.com/foreign-policy/rok-the-biggest-loser-of-thaad> (검색일: 2018년 9월 1일).

http://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t1234731.shtml (검색일: 2018년 9월 1일).

http://www.sohu.com/a/29471053_148882 (검색일: 2018년 9월 1일).

<https://www.scmp.com/comment/insight-opinion/article/1938956/> (검색일: 2018년 9월 1일).

[ABSTRACT]

China's Awareness and Response to the THAAD

Strategic Discomfort and Wishful Thinking

Kihyun Lee |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Language & Diplomacy (LD),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hy was China so aggressive on the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deployment in South Korea? This question is still important until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not been completely resolved. In order to find the answer to the question, this study classified the major discourses in China related to THAAD into the security threat, technological uselessness, strategic imbalance. But these discourses do not explain exactly why China was so aggressive on South Korea. This is because the THAAD is useful for Korea's security interests, is not a direct threat to China's missile system, and its strategic imbalance also has a logical contradiction.

Instead, this study argues that China's anger was due to the strategic discomfort that some countries in the region including South Korea had jumped on bandwagon toward US and the wishful thinking that China was able to lure South Korea. Since the US' rebalance to Asia happened, there had been a growing trend for the countries in the region to get on the bandwagon toward the US to check China's power and achieve its own interests. China had been strategically uncomfortable with the change of environment, it chose an offensive response to solve this problem, unlike in the past.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change of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improvement of the Korea-China relationship, Xi Jinping government in China expected that South Korea would be a Swing state. However, South Korea's decision to deploy the THAAD was recognized as a full-fledged bandwagon toward the US, as in the case of regional countries, and South Korea's betrayal of China. So China was so aggressive on the THAAD issue in the South Korea.

Keywords: THAAD, Korea-China relationship, Strategic discomfort, Wishful thinking

투고일: 2018년 10월 5일, 심사일: 2018년 11월 5일, 게재확정일: 2018년 11월 19일
--